

# 각 시도지회 분회명칭 변경될 듯

한국양봉협회 각 시도 분회의 명칭이 변경될 방침이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3월 27일 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각 지역 시도 분회의 역할 활성화와 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분회' 명칭을 변경기로 했다.

각 지역 분회 명칭 변경은 예전부터 요청된 사항으로 타 단체와 다른 조직의 명칭이 분회장들의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됐다. 타 단체의 경우 중앙회, 도협의회, 지회, 지부 또는 도지회, 도지부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양봉협회의 경우 지회와 분회로 되어 있어 그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변경 명칭으로는 분회→지부, 분회장→지부장으로 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지역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사들의 의견에 따라 이후 개최되는 지회장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기로 했다. 그러나 분회명칭 변경은 정관변경과 정기총회를 거쳐야 하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 의견 수렴해  
명칭 결정,  
내년부터 사용가능



## 벌꿀 품질관리 강화하나 구체적 수치는 더 논의될 듯

또한 자조금 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계획, 2010년 아시아 양봉대회 확대 추진 위원 구성등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기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일반잡화벌꿀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농림부 및 소비자 단체의 요구 등으로 품질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탄소비 강화가 제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벌꿀품질관리제도 개선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결정기로 했다. **양봉**